

새해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거리가 되었으면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면서 언제나 多事多難하였다고 합니다. 새해는 萬事亨通을 소원하면서 이같은 回顧와 기원은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壬申年을 바라보며 이땅 위에 平和가 뿌리내리기를 간곡하게 염원해 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거리가 가득 메워지기를 바라며,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거니는 모습이 사라진 거리는 조용하게 또 밝을 것입니다.

남의 탈선은 죄악이고 나의 부정은 공익을 위한 방편이라고 강변하는 추한 모습의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며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편안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치 살해의 위험속에 노출된 사람처럼 불안하게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조차 걸러서 약하게 호흡할 수 밖에 없는 공해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개발이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자연질서의 파괴는 오히려 문명의 흐름을 더디게 하고



최 원 영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봉사하자

자연의 보복만을 초래하여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유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자연을 변질시키고 일그러진 모습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투기와 부정, 그리고 과속, 음주에서 오는 사고, 자연파괴 및 인재 등은 일그러진 우리들의 정신자체의 결과일 것입니다.

자연속에서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있게 꾸며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파괴하고 기형으로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욕적으로 건강한 한해이기를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성인병진단과 예방 그리고 보건교육과 계몽 등 큰 일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해에는 지난해에 중단되었던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를 재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큰 몫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필자=가톨릭의대 기생충학교수〉